

8



허학철 선생

허학철 선생은 1922년 4월 16일에 원동변강 면하주, 뽕씨에스 구역, 석하늬가 촌에서 빈농민의 가정에서 한생 하시였다. 허학철 선생의 부모들은 농민이였지만 지주에게서 일하 받은 토지에서 농업을 하였으며, 다음 1928년부터 공산당정책에 의한 농촌정리 협동화 정책시기부터 제일선참 협동도움에 가입하여 계속 농업에 종사하시였다.

허 선생은 1930년 즉 8세 되는 때부터 향촌 소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여 1935년에 졸업하시였다. 허 선생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일하시였으며 특별히 화기 방학 때이면 잘사는 집 자식들은 장여름 뉘릴 각지를 하면서 놀고 있었으나 허 선생은 장여름 일하시였다. 특별히 1936년에 아버지가 불구자가 된 후 허 선생의 형제간은 (허 선생의 형이 있었음) 복원을 대신하여 원동으로 복귀한 인강제 어구 때까지 계속 협동조합에서 일하시였다. 강제 어구에 의해서 허 선생은 부모들과 함께 우르백한, 하유권호주, 중철칙 구역 아반가르드 협동조합에 도합하게 되었다. 즉 이곳에 협동조합이 없는 갈밭에 초콜막이 몇 집 있는 곳에 한인들이 즉 어구인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그를 아반가르드라고 명명하였었다 (한인말로 선봉이란 말임)

허학철 선생은 강제이주 이후 자기 협동조합과 친접해있던
 협동조합 << 시절의 20주년이 예년 공부를 계속하여 1942년에 고종을
 마감하게 되었다. 강제이주 당하여 중앙아시아 도착한 한인들중 다수
 케호주에 도착한 한인들의 경제행태에 비교적 좋아졌다 그것은
 한인들은 자기 명예를 훼손시키고 전체지식을 언체리들을 전멸
 시키고 언어 풍습까지 배척한 다른 언체교육은 고어와 하라고 명
 령함에 따라 그에 순종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여
 발언도 못하면서 다만 입에 들어가는 쌀만 짚어서 어린이
 들의 복음어나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극렬히 어리를 속이고
 말하였다. 그 결과에 비추어 가 잘리면서 많은 혼란하게
 억제되었던 것이다. 강제이주 첫 몇해 동안 어린아이들과 노인
 들이 많이 죽었다 특히 1938년 봄부터 시작하여 여름동안에
 특히 많이 죽었다 허학철 선생의 가정도 아버지는 불구자가
 되었으나 두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협동조합일에 열성적으로
 참가한 결과 생활수준은 편 편하게 되었다. 허선생
 은 고종 학창 시절에 레닌공산청년회에 가입하였다. 당시
 소련에 살고있는 청년으로서 공산청년회에 가입하지 못하면
 다른 관공들이 그 청년을 좀 외면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던가 그
 령지 아니하면 아주 행동이 불량한 사람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1938년, 16세 되는해에 공청회에 가입하고 1942년에
 고종로 마감한 다음 동년 8월에 소련인민이 독일을 반대하
 는 위대한 조국전쟁과 관련하여 모스크바에서 임시로 어주하
 여 카슈켄주 캅한스크 시에 파 주재하여 있는 모스크바
 자동차도로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었다. 허선생은 동
 대학에서 일년간 공부하신다음 소련 전선의 환경이 아주
 긴장함과 관련하여 전체 남자들을 징병하여 다른 민족
 들은 전부다 전선으로 화전하고 한인청년들은 로동전선이라고

3.
영 영한 각 변방이나 전선가 가까이에서 전개하는 철도, 철교 건설
설비나 군수품 생산기업소에 파견하였었다. 허석철도 이런
로력 전선에 파견되어 1945년 11월까지 일하시었다.

1945년 11월에 집에 돌아오자 대학공부를 계속하려고
결심하고 아직 장가로 들지 않고 있는 이때에 또 다른 사변이
생기었다. 이번에는 공화국 타슈켄트 주 군사지원부에서 정식보
통군 복무에 소병한다든 군사지원증이 나왔다 전쟁 나면 간
한 시간도 쉬지도 못하고 바빠 돌아간 형편에게 또다시 소병
증이 오다니 대단히 비관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전쟁시기에는
군대에 소병될 자격이 없어서 전선에 나가지 못했어서 아주 우회
스러운 생활을 하였던 터 이번에는 복통군대 복무자격을 부여
하여 풀려났으므로 벌써 얼마쯤 반가웠는데 또 그와 더불어
이번에는 군대에 동원되어 자기선조들의 고향인 조선으
로 나가서 북투하게 된다는 기에 더 무서운 생각도 못하고
도리어 아주 반갑게 맏먹고 군 군사지원부에 달려가 모든 수
속을 완수하였다.



사진은 허석철 선생이 1947년에 사단장최고문의
책임 총역관으로 제실시에 자기친구와 같이 찍은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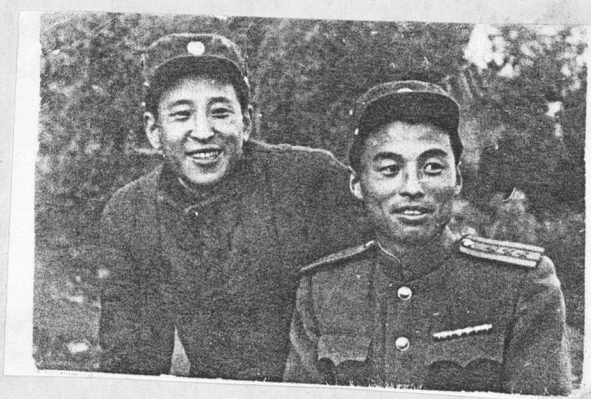
허선생은 1945년 11월에 소련군 원공변강 제 일진선사령부관하 제 25군단의 주재하여 있는 평양에 도착하여 원전사령부 파견에 따라 함원도 인제군 사령부 총역관으로 1946년 12월 24일까지 일하시었다. 1946년 12월 25 부터 1948년 7월 19일까지 조선인민군 제 일사 정치고문의 책임별역관으로 일하시었으며, 그후 1948년 7월 20일 부터 1948년 12월 20일까지 < 고려 인민군 신문 > 출판사 번역원으로 일하시었으며, 그후 북한 지역으로 부터 소련군을 철퇴할시 모스크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지시에 따라 허택선생은 소련군 적에서 제명시켜 조선인민군 적에 전적하는 동시에 형식으로 소련공민권에서도 제명하여 북한공민권에 전적하였다. 소련군의 북한에서 철퇴하는 허선생은 1948년 12월 25일 부터 1950년 10월 10일까지 계속 < 인민군 신문 > 사 출판물 군사검열원으로 일하시었다. 1950년 동족상잔이 시작되후 1950년 10월 10일 부터 1951년 2월 16일까지 권군되어 < 조선인민군 전사수첩 > 출판사 부주필로 일하시었다. 1951년 2월 17일 부터 1952년 5월 4일까지 < 선전원 수첩 > 잡지사 주필 책임에 계시었으며, 그후 1955년 8월 28일까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산하 김책명칭 정치군관학교에 전근되어 처음 일년 동안은 군관학교 로어 강좌 강좌장으로 그후 부터 고급정치군관 단기 강습소 (삼개월강습) 소장으로 계속 일하시었다.



사진은 허선생이 김책 정치군관학교 강습소 소장으로 계시시에 찍은 것이다. 사진에는 김재웅 총정치국장 외 작은 리훈백 과 총정치국 각부장들이다. 4

김책 정치군관 학교는 명칭 그대로 1946년 초기에 아직 연변
 군대로 정식 조직되기 전에 평양남도 대항리에서 연변군대의 수뇌부
 를 양성할 목적을 두고 연변군 정치학교라고 조직하고 초대교장
 에 김책선생이 추대되었다. 초대 이 학교에는 무얼이나 각 병종
 학부들이 다 있었지만 항공대로 중대의 규모로 있었다. 김책선
 생은 계속 1명예 교장으로 계시고 직접 학교 사업을 지도한 분으로 다른
 책임적 간부들이 많이 교체되면서 열하시였다. 다음 연변군대가
 규모적으로 커지면서 각 병종별 학교들이 조직되어 - 강건보병 군관학교,
 포병 군관학교, 정치군관학교, 통신군관학교, 항공군관학교 등으로 갈라지면서
 내무원은 내무원 군관학교를 가지게 되었으며, 지어는 남한 별관지산
 학교까지 따로 있었다. 허학철 선생이 정치군관학교 로어 감독장
 으로 제설시에 즉 1953년 2월 초순 아직 남북이 총을 겨누고 동족
 상잔을 계속할시 김책정치군관학교는 평북 함산군 호향산에
 주재하고 있었지만, 바로 2월 초 2일날 밤에 유엔군 항공기 4기 -
 2기 비행기의 대포격을 받았다. 당시 학교에는 학생 약 2천
 명과 강습생 들어 약 300명 가량 공부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이나
 강습생들은 한병도 손실로 받지 않고 다만 교원들과 군의노성원,
 행정 일꾼들이 많이 손해되었다. 총사령관은 약 120 명에 달하
 었다. 북한이 명승지인 호향산이 대포격을 당하여 한인들의 문화유적
 이 많은 손해를 입었다. 바로 호향산 산골에 있는 유명한 절간들은
 아무런 손실이 없었으나 아래 뚝지 있던 많은 절간들은 지어나 다
 파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포격 이후 학생들의 공부는 크게 중단되
 지 않았으나 학습소나, 숙소나 할 것없이 전부다 분산하여 학생들은 소대
 중대, 대대 별로 각 골짜기에 길에 은폐되는 곳에 건설하고 강습
 소는 한개 골짜기에 소대별로 배치하였다. 그후 1953년 7월
 28일 정전이 비준되는 날까지 포격은 다시 오지 않았으나, 학생
 들이나 강습생들은 많은 시련을 당하였다. 허학철 선생은 강습
 소 소장으로서 제설시 근 4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비교적 일을

잘 조직하는 간부로 평가 받으면서 위선있게 지내었다. 기본 교수 과목은 굳어 강좌장으로 제시된 때와 같이 굳어 과정을 강의 하였다.



허학철 선생은 1955년 8월 29일 복허 농화리에서 '조선 인민군기 신문 부류필로 일하게 되었다. 이상에 보면 사진은 부류필로 게시할 당시 신문사와 같이 찍은 사진이다.

허학철 선생은 신문사에서 약 일년 좀 즐겁게 일하시고 1956년 12월 1일부터 좌편받아 평양군사아카데미 내 고급군관 강습소에서 1957년 1월 22일까지 강습을 받고 계속 그 강습소에서 정치부소장의 직책에서 1960년 9월 16일까지 일하게 되었으며, 그후 허학철 선생은 소련으로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허학철 선생은 북한에 나가 살때에 23세의 청년으로 소련공산당에 입당하지 않았으며, 레닌 공산청년회 회원으로 처음 북한에서 일하시었다. 때문에 허학철 선생은 계속 고급간부로써 득용되려면 반드시 공당원이나 노동당원이 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북한에서 활동해야 할것을 결심하고 1951년 2월에 김책 정치군관학교 로어 강좌장으로 게시시에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시었다. 원일군대내 정치일군이란 누구나 다



사진은 허학철 선생이 북한 서해권선사령부 군사위원이신
김일(김 리와 나드) 장군과 같이 1954년에 찍은 것이다.

할 것 없이 우선 로동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또 앞으로의
전망을 예견하면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 후 허 선생은 약 9년
반 동안 로동당 당원으로써 꾸준하게 조국과 당을 위하여 일하시
였다. 그러나 벌써 1956년에 로동당내에서, 조는 인민군대 내에
서 유명한 반소 반공산당 거두, 김일성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단독
군주주의 세습제도의 사상적 지도자책임하에서 진행되는 사상
검정 운동이 인민군대에도 넘어져 나쁜 놈, 공작 놈, 소련 놈 등
을 거어내 전부다 청산하고 자기 김일성 발발지산화 내에서도 수군
이요, 5권이요 도도 쪽패를 갈라 청산하던 1958, 1959, 1960년에
당진하에서요, 아북좌에로 속하지로 안고, 어떤사람과도 다정
하게 만나 사상적 단결을 환인르 없는 허학철 선생은 북한
형편을 도리켜분속 터는 북한에서 살 재미로, 전망도 아예다
허 선생은 아무런 짐은 지가 없으므로 불구하고 당 회의에서 말하

노련과 등등이라니, 허가어 가족주의 철폐야, 사대주의 타파, 노련관
 류류의 잔당이니하곤 비술고, 권르티군 허였다, 그러지 안고 아르 과연
 노련과 친구들은 다 철산 되어가고 없는 형태에서 함말북한에서
 는 여 살고 싶은 생각은 권르티였다. 때문에 허 선생은 노련에
 귀국할 수속어 끝난 다음 1981년 2월에 모스크바에 도착하
 여 노련군대에서 제대 명령을 받으면서 민족별위성 1명 등
 제 0882 호 1981년 6월 16일부 제 59 조 "13" 에 따라
 해외에서 예비역으로 제대되면서 "노련" 군사징호를 부여
 받게 되었다.

허 학생 선생은 노련에 귀환하신후 자기 친척들이 많고 살고 계
 시는 유르백 공화국 타슈켄트에 도착하시면서 외국에 가서 모
 동안 일하신 공적에 따라 사택도 무늬로 배정받고, 아이들의
 공부 문제, 자기와 조복영의 취직 문제 등을 다 해결 받고 여러
 친척들과 등지들과 한기게 아주 행복하게 살며 일하시었다.
 허 선생은 여러 공화국간 한인 신문 "레닌기치" 의 타슈켄트
 특파기자로 1982년까지 일하시고 그 후 연금생활
 을 하시다가 1990년 정월 8일에 68세를 일기로하시고
 별세하시었다. 허 선생은 북한에서 일하시시에 수단한 국가적
 표창을 받았었다. 2개의 훈장, 4개의 메달을 수여받으니까, 노
 련정부의 수단한 메달을 수여받았다. 세상을 떠나시는 허
 선생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농사를 짓게 안고서 별세하시었다
 현재 허 학생 선생 사모님 김연리사위씨 양은 아들과 같이
 수단한 농군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타슈켄트에서 1997. 08. 16.